

여성 절반 이상 “밤길·공중 화장실 두려워”

여가부,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차 피해 방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수요 높아

우리나라 여성 절반 이상은 밤에 혼자 다니거나 공중 화장실이나 택시를 이용할 때 성폭력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에 대한 정책적 조치로는 2차 피해 방지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여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전국 만 19~64세 이상 성인 남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 항목을 보면 여성 63.4%는 밤늦게 혼자 다

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봐 두려워했다. 52.9%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을 두려워했고 절반 이상인 51%도 택시나 공중 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겪을까봐 걱정을 한다고 답했다.

평생 경험한 성폭력 피해율을 보면 여성 16.6%는 성기 노출 피해, 9.2%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 7%는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 불법촬영 피해와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각각 0.4%다. 반면 남성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가 10.3%로 가장 많았고 성기 노출 피해 2.4%, 성추행 피해 0.9% 순

이다.

응답자의 2.6%는 한 번이라도 경찰에 성폭력 피해 대응을 위해 신고를 한 적이 있었고, 지원기관 도움을 받은 비율은 0.6%였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로는 16.7%가 2차 피해 방지, 16.6%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3.9%가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기관 인지도는 74.4%였다. 단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 대리 요청 인지도는 42.9%, 신체·정신적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 인지도는 53.6%로 비교적 낮았다. 필요한 도움과 지원으로는 각종 정보 제공이 56.3%, 피해 상담 55.9%, 삭제 지원 및 유포현황 점검 48% 순이다.

여가부는 올해 수사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이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의 소송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신고 및 처벌에 대한 해의 입법동향 등을 연구하고, 성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 등 조사항목이 중복되는 유사통계를 통합·연계해 표본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해 통계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함평경찰-함평군 노인회, 업무협약 체결

함평경찰서(서장 윤창기)와 ‘함평군 노인회(회장 조용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사망사고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피해를 함께 줄여 나가기 위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함평=김광춘기자



순천경찰,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지난 20일 순천 성동로터리 일원에서 순천시민들의 생명보호와 교통안전에 위하여 교통사망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무안소방, 피난약자시설 관계인 중심 소방훈련 실시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지난 16일 무안실버요양원에서 피난약자시설 관계인 중심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무안=이기성기자



강진소방,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생활안전분야 ‘전국 3위’

강진소방서(최기정 강진소방서장은)는 지난 16일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제36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생활안전분야에서 전국 3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화순소방, 여름 휴가철 대비 화재안전관리 강화

화순소방서(서장 이중희)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여수경찰, 교통사고예방캠페인 및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지난 20일 여수초등학교 경문 앞에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여수=김현근기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원인은 ‘원인 불명’으로 결과 나와

국과수 결과 직접적인 발화원 특정 어렵다는 결론 경찰, 방화 가능성 많이 낮지만 배제할 수 없다 판단 상해 여부 등 조건 충족 안 될 경우 입건자 없을 수도

지난 3월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지난 2014년과 같이 ‘원인 불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설명회를 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화재의 직접적인 발화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발화원 특정을 위해 화재 발생 후 소방본부와 국과수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을 2차례 진행했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현장 관계자 진술 수집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화재로 현장이 심하게 연소돼 발화부 환경이 어려웠으나 최초 목격자 진술, 소방기 작동상태, 현장 소취 상태 등을 고려해 공장 내부 3115피트 주변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3115 지하 피트의 전선 스파크 및 배관 등의 열이 내부에 떨어진 먼지 등 가연성 물질에 착화해 발화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직접적인 발화원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1차 발화 추정 장소에서 불씨가 날려 2차 및 3차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불씨가 날린 것은 공장 내부에 먼지를 배출시키는 집진시설로 불씨가 이동해 추가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차 화재 발생 약 10분 뒤 발생한 2차 화재의 경우 발화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구체적인 발화부 규명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화 원인이 너무 훼손돼 증거를 찾기 못했고 전부 불에 탔다고 하더라도 방화의 경우 특정한 표시가 있는데 이러한 표시가 감식 결과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방화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고 상해 여부를 판단해 실화나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할 수 있지만



상해 기준이 매해해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재 당시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3일 자연 치료는 상해로 볼 수 없어 상해 여부에 대해 병원에 문의를 했지만 모든 병원에서 회신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CCTV 등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촬영됐으며 상해로 인정되는 사망이 없을 경우 입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라며 “국과수에

서 나온 결과 2가지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하며 소방 점검에서 나온 사실이 잘 이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12일 오후 10시 9분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대응 3단계까지 발령한 뒤 헬기 9대를 비롯한 장비 158대와 인력 750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58시간 만에 진화했다.

불로 2공장이 모두 타고 3 물류창고에 있던 타이어 완제품 21만개도 전소했으며 당시 근무하던 작업자 10명이 대피했다.

이슬비기자



천일염 방사능 안전성 검사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천일염을 대상으로 방사능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대형유통매장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천일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 ‘음주운전·운전자 바뀌치기 혐의’ 이루 1심 집행유예에 ‘항소’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동승자로 ‘운전자 바뀌치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이무(40·본명 조성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1일 조씨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의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해 운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음에도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박씨와 운전자를 바뀌치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했다. 박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조씨가 박씨의 음주운전 바뀌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이 포착,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조씨가 박씨에게 운전자 바뀌치기를 종용하거나 회유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조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지인 A씨에게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락한, 같은 날 직접 음주 상태로 과속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 등도 받았다.

당시 조씨의 차량은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다.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조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수경찰, 교통사고예방캠페인 및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지난 20일 여수초등학교 경문 앞에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여수=김현근기자